

2018 학교밖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유유자적
결과자료집





유유자적
유람단

p.6



유유자적
아티스트

p.26



유유자적
박람회

p.50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학교밖유유자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및 창작의 즐거움과 완성의 기쁨을 통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도모하여 다른 과제나 갈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나 청소년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부적응 청소년'이라는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18년 3월 ~ 12월

대 상 | 서울 및 수도권을 생활동선으로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참여인원 | 실인원 89명, 연인원 1,402명

사업내용 | 유유자적유람단, 유유자적아티스트, 유유자적박람회

유유자적 유람단

「유유자적유람단」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된 문화예술체험단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극, 뮤지컬,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함께 즐기고, 경험하는 사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향유권 신장 프로젝트이지요.



해운대의 아침 with 민지
photo by 동희

연극 <옥탑방 고양이>

2018.04.23
대학로틴틴홀



#첫모임 #아직은_어색어색 #스테디셀러_연극 #연애

"사랑에 대한 솔직한 마음이 중요하단 걸 깨닫게 해준 연극이다."

"너무 흥미로웠다.
그렇지만 '너 게이냐?'라는 발언으로 개그를 소화하는게 불편했다"

"공연장이 작아가지고 배우들과 소통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연극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재밌는 요소가 있어서 웃고
나름 진지하고 조언들도 많아서 좋았어요"

"너무 오글거려서 조금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유명하다해서 기대했었는데 기대만큼 좋았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2018.05.05
인천문화예술회관



#어린이날 #인천까지ㅎㅎ #남과북 #전쟁은싫어요

"전쟁의 비극을 화합과 배려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인상깊었다.
또, 전쟁이 낳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참 슬펐다."

"정말 재미있었다.
적으로 시작한 두 진영이 화합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여보셔♡"

"어신님이 예뻐어요. 조금 지루할 뻔 했지만 재밌음!"

"평소 좋아하는 '서은광님이 할 때 보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로 보게 되어 좋았다.
남북에 관한 내용이라 지금 시점에 맞는 뮤지컬이었던 것 같다."

<Weather: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떨까요>

2018.05.30
디뮤지엄



#사진전 #날씨맘음 #인생샷 #Good

"오늘 나의 날씨는 '맑음'이다.
독특하고 가까운 소재라 더 많이 힐링된 것 같다!"

"예쁜 사진들이 많아 좋았당.
사진전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와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날씨는 '비'
비오는 날 사진찍는 걸 좋아한다."

"여러가지 날씨를 거치면서 여행한 기분이에요.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색감도 너무 예뻐고 연출도 너무 좋은 전시였다."

전시 <어둠 속의 대화>

2018.06.27
북촌 전용 전시관



#체험형전시 #강력추천 #눈감고떠나는여행 #힐링

"무섭기만 했던 어둠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신경쓰지 않았던 감각을 사용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새롭고 좋았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데 시각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목하지 못했던 다른 감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다."

"익숙하지 않던 어둠을 100분간 체험하며
겁고 느꼈던 생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즐거운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웠습니당"

"최고였음"

뮤지컬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2018.07.26
대학로 TOM2관



#대박꿀잼 #순발력짱 #노래도완전잘해 #또보고싶어요

"너무 재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다가 나온 듯"

"관객이랑 호흡하는 뮤지컬이 처음이라 신선했고,
배우들의 순발력과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외계인 빅뱅의 성공기!
제이지가 다 살렸넹~"

"먼저 보고 온 친구가 정말 재밌다며 극찬을 해서
꼭 보고싶었는데, 이번에 보게 되어서 기뻐다.
역시 강력추천할만한 뮤지컬이었다."

"한달에 한 번 보는 거라 처음엔 어색했는데
다섯번째 보니까 좀 친해진 듯:)
다음에 보면 더 반갑겠지요ㅎ"

뮤지컬 <웃는남자>

2018.09.21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간만에보니_더반가워 #넘버도_무대도_굿 #문화생활좋아

"나도 누군가의 별이 될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정말 노래도 벅차고 감동적이었다. 여운이 오래 남을 것 같다."

"영혼을 갈아서 만든 무대, 웅장한 반주와 함께 곁들여진 노래
'눈을 떠라'라는 장면엔 눈을 스토리는 조금 별로 였지만
볼거리가 많았던 뮤지컬이었다.
여왕이 허락하는 봐!(봐하하하하)"

"지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많이 채우고 가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뮤지컬이라 재밌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선 펑펑 웃었다아...ㅠㅠ
뮤지컬을 너무 좋아해서 만족스럽게 봤다."

<유유자적유람캠프>

2018.10.10~11
부산



#부산여행 #2018BIFF #간만에바다구경 #기차 #추억

소감문 유유자적 유람캠프

힐링되는 기분이고 이제 점점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행복했다. 여행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두려워서 못했던 걸 할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번 여행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소중한 친구들을 만난 것이다. 역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 봐야 하는구나. 쌤들 고생 많으셨어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일정이 빡빡하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던 것 같다. 수빈이랑 재밌게 놀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있었던 것 같다.

충전이 될 줄 알았는데 방전이 되고, 의도치 않은 곳에서 꿈을 자고... 막 돌아다니면서 힘들면서 충전과 방전을 반복했던 것 같다.

올해는 부모님을 떠나서 여행을 많이 다닌 것 같다. 러시아 여행도 부산여행도... 굉장히 마음이 커지고 성숙해지는 기분이다.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또 참석하고 싶다.

저의 첫 부산여행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재밌게 보내게 되어 기쁘다. 철없고 놀줄만 아는 저를 인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해용♡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부산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담고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한동안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 같아요. 감천문화마을, 해운대, 아쿠아리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모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10.10 AM 9 / 미디어센터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시간



10.10 AM 10:45 / KTX
기차여행은 언제나 신나



10.10 PM 2 / 감천문화마을
간만에 입은 교복



10.10 PM 7 / 아쿠아리움
생각보다 볼거리가 풍성해요

10.11 AM 11 / 극장
영화가 너무 어려웠어요



10.11 PM 2 / 영화의전당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연극 <오백에삼십>

2018.11.27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간만에_유람단모임 #연극나들이 #갑과을_현실 #어딜봐

“현실적인 연극, 유쾌하게 관람했습니다 ^^”

“선물에 눈이 멀어 무대에 선 나... 그래도 재밌었다.”

“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연극 내내 코믹한 요소들이 많아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극중 건물‘주’님의 갑질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울컥하긴 했지만 공연 자체가 워낙 유쾌하고 재밌어서 좋았다.”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사람들과 사회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착실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 이야기라서 더 좋았어요.”

유유자적 아티스트

「유유자적아티스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작자가 되어 공동체 속에서 창작과 완성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타인과 하나의 팀이 되어 의견을 나누고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은 몸과 마음 모두 힘든 일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뭐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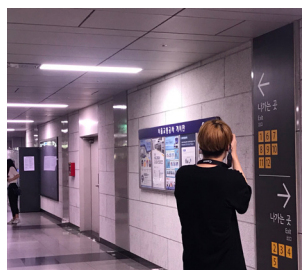




미니어쳐사진프로젝트

2018년 4월 ~ 10월

강사 | 정희정







"처음에는 너무 막연했어요.
손톱만큼 작은 미니언체어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투명한 젤리뽀가 색종이와 만나 수영장이 되고,
과자 부스러기로 모래사장을 만들고,
서로 장난처럼 그려준 그림들로 미술관의 한 장면을 표현하기도 하고...
주변의 흔한 재료들을 다르게 보려는 노력이 더해지면서
미니언체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팟캐스트동아리

2018년 3월 ~ 현재

강사 | 이해선, 이희도

정신없던 순간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한 해였다.

2018년은 너무 빨리 갔다.

힘들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해서 뿌듯한 일 년이었어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군.

2018년은 동생과 싸우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못산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뜻깊은 한해였다고 떠올릴만한 한 해였어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대표님 인터뷰 / 스팟스튜디오 특집방송





영화 <리틀포레스트> 편 / 놀토서울엑스포 야외방송



한 번의 우연과 긴 인연의 시작

열혈청춘 하제원

제가 처음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를 가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자퇴를 하고 난후 가입한 ‘세학자’라는 카페에서 같이 팟캐스트를 해보지 않겠냐는 글을 본 것 이죠. 참여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기에 저는 덜컥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경기도 화성에 고모네 집에 살고 있었고 서울까지 지하철을 타고 1시간가량을 달려야 도착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도서관과 집만을 왕복하며 지루하게 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지하철을 타는 것도, 길 찾기 앱에 의지해 길을 찾는 것조차도 활력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한 저는 담당선생님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했이라며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 앞에서 저는 긴장 없이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팟캐스트 합시다!!”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시는 선생님 말씀에 마음속 기쁨이 밖으로 뛰쳐나와 저도 모르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저는 놀토서울엑스포에서 진행되는 팟캐스트 체험부스에서 “유 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퀴즈쇼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에 도서관에서 퀴즈 책도 대여해 보고 포털사이트에서 어떤 게 좋을까?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맡아서 한다는 것,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겨 평소보다 기합이 들어 간지도 모릅니다.

행사 당일 저는 처음 접해보는 방송장비 들을 차에서 내려 부스까지 옮겼고 마치 제가 라디오 방송국의 직원이 된듯해 우월감에 젖기도 했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기 전 시간이 남아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친구와 행사에 여러 부스들을 돌며 체험하였고 친구와 저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행사에 거리낌 없이 놀 수 있었습니다.

대망에 방송시간 저는 팟캐스트를 참여할 게스트를 구하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행사장을 돌아 다녔습니다. ‘대체 누구를 데려와야 할까??’라는 고민보다는 ‘과연 내가 섭외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을 하니 자신감이 붙었고 옆에 선생님이 있어서 두려움도 덜 하였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도 긴장 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는 전혀 긴장되지 않은 척 했지만 저도 처음이기에 제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준비된 대본을 읽었습니다. 헤드셋에 올려 퍼지는 저의 목소리가 지금 이순간이 진짜구나 하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몇 번 실수가 있었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팟캐스트를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들어본 저의 팟캐스트에는 사투리억양이 생생하게 들려 듣는 와중에 너무 웃겨 이불킥을 쳤습니다.

그래도 해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 저는 나도 팟캐스트를 참여하는 날이 올까 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생각에서만 그쳤고 저는 언제나 청취자로서만 팟캐스트를 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와 이거정말 재밌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청취자로서만 그쳤던 제가 언젠가는 진행자로서 마이크를 입에 댄 저의 상상이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가 온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공개방송 이후 미디어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유유자적 유람캠프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며 또 만나지 못하겠지, 아쉬웠던 마음은 한 달 후 후기모임을 통해 달랠 수 있었고요. (캠프 때 함께 했던 산성샘을 만나게 되리라 생각 못했었는데, 너무 반가워 혜화역 한복판에서 부둥켜 안기도 했었지요.)

자퇴를 하고 익숙하게 살던 곳을 떠나 온 후, 순간순간 떠오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잘 한 걸까. 그런 마음ियो. 이 불안을 쉽게 떨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잘 선택한 건지 100% 확신이 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한번의 우연으로 시작된 미디어센터에서의 만남과 그 속에서 만들어간 많은 추억과 인연, 새로운 시작과 용기는 이따금씩 흔들리는 제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s

오늘 갑자기 연락 받아 부리나케 썼습니다ㅋ

소감문 이란게 이렇게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편영화제작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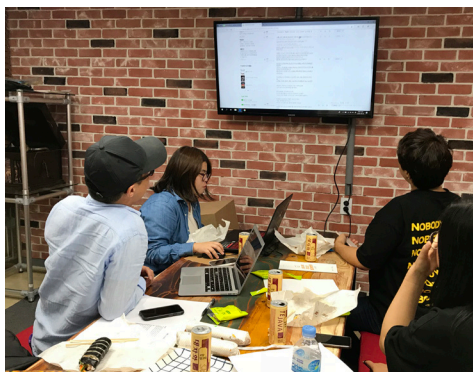
2018년 8월 ~ 11월

강사 | 최승일, 이승준



인생은 영화다.
한 번 밖에 못찍기 때문이다.
이런 망할.

예진/민경/서영





(소감문을 적으랬더니, 시를 썼네.)

그분 때문에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감독 문예진

검정고시와 대학입시를 병행하는 19살 지혜는 우연히 버스킹을 하는 연호를 보고 한 눈에 반한다. SNS를 통해 그의 일거수일수족을 따라다니며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나갈수록 페인이 되어가는 지혜. 결국 그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일하는 곳을 찾아간다.





너무나도 매력적이었던 ‘학교밖청소년 단편영화제작 워크숍’을 마치고

강사 최승일

우리의 워크숍을 돌이켜 보면, 항상 맛있는 저녁식사가 떠오릅니다. 덕분에 우리의 워크숍은 수업 같지 않았고 편안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의 맛있는 저녁식사와 이어진 간식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긴장을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내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야기도 영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약간의 용기를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느낀 자신의 이야기를 다양한 색깔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글쓰기에 몰입하고 자신이 쓴 글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아이들은 어느새 워크숍에서 제작될 한 편의 영화의 감독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준비 과정이 떠오릅니다. 한 번도 영화를 만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영화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던 만큼, 강사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촬영 예행 연습을 추천했습니다. 아이들은 알아서 역할을 나누고 리허설을 하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감독은 스토리보드의 필요성을 느꼈고, 촬영감독은 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재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진행 방식에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워크숍의 형태였습니다.

사실 길었던 촬영 준비 기간에 비해 촬영은 2회차에 불과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에 이르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영화제작이 처음이라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약간의 용기를 주고,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영화제작에는 전문성도 요구되지만, 가장 필요한 건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와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뿐이니까요. 시간에 쫓기긴 했지만, 좋은 팀워크로 웃으며 무사히 2회차의 촬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해보는 영화 촬영으로 소진된 아이들은 후반작업에 접어들자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했습니다. 늘어난 시나리오 작업과 촬영 준비로 원래 일정보다 많이 미뤄진만큼 촬영을 끝난 이후 바닥이 났지요. 제가 할 일은 아이들의 회복을 기다려주고, 역시 마무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더 이상 편집이 좋아지지 않는 몇 번의 고비를 넘어 이내 다시 처음의 열정을 되찾았고, 멋지게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완성된 영화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올 한 해 제작된 영화들과 함께 한 상영되었습니다. 다른 청소년이 만든 단편영화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은 처음엔 긴장하긴 했지만, 상영회가 끝날 무렵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상영작 중 최고였으니까요. 상영회는 힘든 과정을 이겨낸 아이들에게 달콤하고 수준 높은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작품을 만들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분요요.

저는 이 워크숍에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고, 쓰고, 촬영하고, 편집까지 마무리하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수행해보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워크숍이 여행이라면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여행자의 자유 여행이어야 합니다. 영화제작 워크숍이라면 준비된 코스로 안내하며 영화 제작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화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분석하고, 해결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대안을 모색하고, 재해결을 시도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걸 찾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이들은 멋지게 해냈습니다.

영화제작은 겉으로 보기엔 매력 넘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은 시나리오라는 벽조차 넘지 못합니다. 만약 시나리오를 완성하더라도 힘겨운 촬영을 거쳐 자신의 손으로 편집까지 완성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멋지게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보이고 난 그날 밤, 선택받은 자들의 세계로 초대받게 되었죠. 끝까지 남아 영화를 완성한 세 명의 아이들은 이 모든 과정과 상영의 경험을 온 몸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 느껴볼 수 있는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미묘하고도 벅찬 감정을요.

이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건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길 바랍니다. 영화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깊이 파고 들어, 뜻이 맞는 동료들을 만나 긴 호흡으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전문 장비도, 전문 용어도, 유명 감독들의 이름도, 작품들도 모르지만, 영화의 본질을 온 몸으로 이해하고 멋진 작품으로 이 특별한 여정을 멋지게 마무리한 특별한 이 친구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미디어매체프로젝트

2018년 8월 ~ 12월

강사 | 김태훈, 전현구

빈 종이를 채우는 시간



미디어매체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무엇을 할지부터 청소년들이 정하지요.
말 그대로 빈 종이부터 시작합니다.

빈 종이에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채웁니다.
각자 다른 의견들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각자의 의견들 중 비슷한 것들이 묶이고
다시 수많은 회의와 자료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프로젝트가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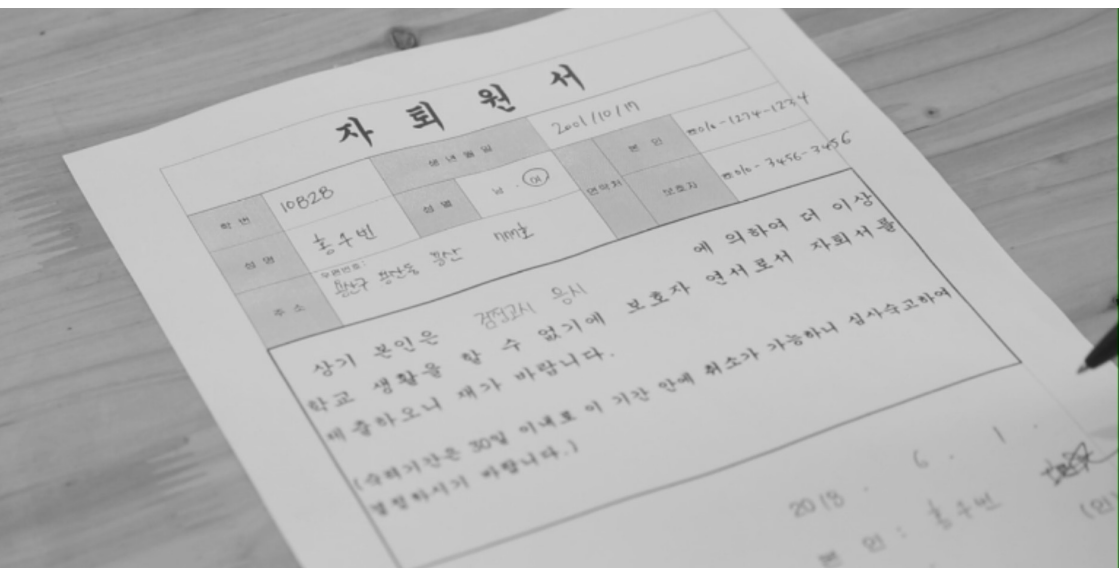
그 다음은 쉬워요.
다 같이 가면되니까요.

빈 종이가 수많은 이야기로 채워질 때쯤
‘우리’의 이야기가 또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기로

감독 조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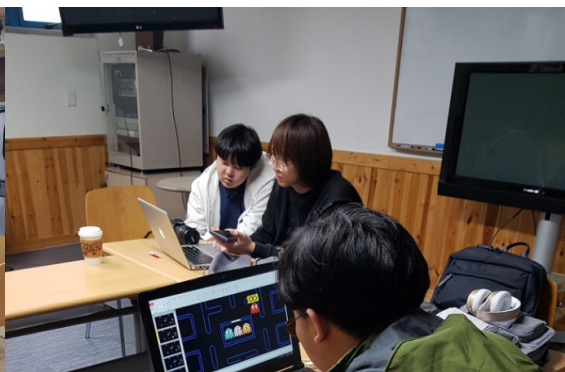
학업의 스트레스에 지친 수빈. 수빈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한다. 고민 끝에 수빈은 자퇴를 결심하지만, 그녀 자신조차 본인의 결정에 대한 확답을 짓지 못한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지 다시 한 번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서 힘들었지만,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너무 매력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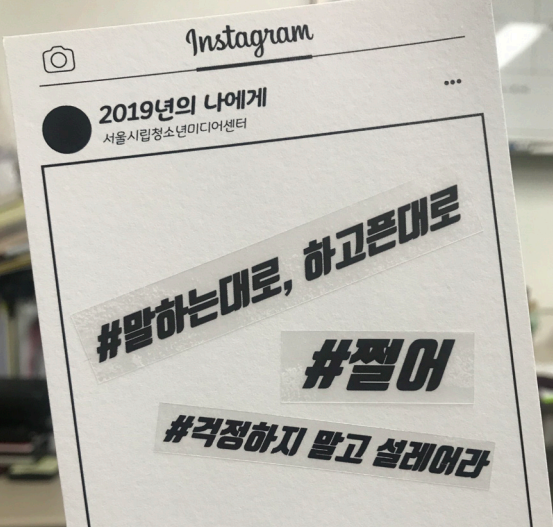
유유자적 박람회

집에서, 학원에서, 꿈드림에서, 미디어센터와 같은 청소년센터와 대안학교에서,

1년동안 학교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유유자적 박람회!

<학교밖유유자적>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과 미디어프로젝트들의 지난 과정과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지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말하는대로, 하고픈대로
#느리게걸자
#벼락부자

2019년 나에게 전하고픈 힐링 메세지

마이크 앞에 앉으면
이야기가 술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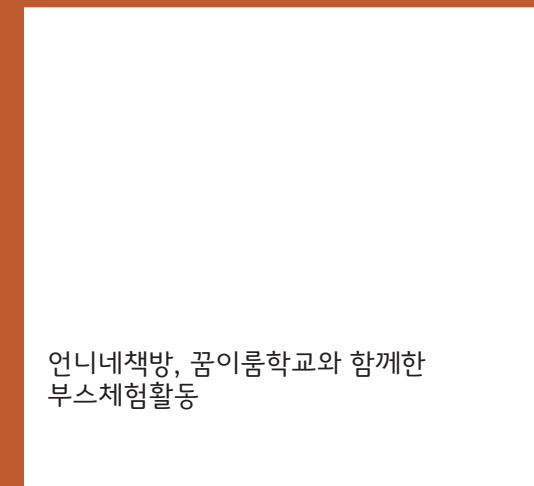
팟캐스트체험



1년 동안
유유자적유람단의 발자취를 따라서
참 많이도 다녔다~!



두근두근 드디어 상영이다!
우리들만의 영화제



언니네책방, 꿈이룸학교와 함께한
부스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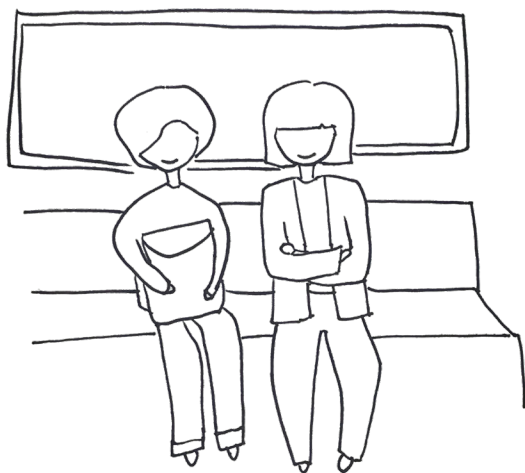
상담활동가 선생님과 함께한
심리카페

2018년 학교밖유유자적은,

같이 연극도 보고, 전시도 보고, 소풍도 가고, 캠프도 가고, 사진도 찍었다가, 배가 고프면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친구도 사귀고, 싸우기도 하고,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함께 글도 썼다가, 읽기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해주고, 멍 때리기도 같이하고, 자료조사도 같이하고, 영화를 만들어 볼까, 그림을 그려볼까 토의도 했다가, 그냥 보드게임이나 하자 하고, 그래도 시작한 건 끝내야지 밤도 새우고, 그래서 아프기도 했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다보면 같이 울고, 웃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민이 해결되기도, 더 쌓이기도 하고,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거 하기도 하면서,

유유자적 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



발행인 임수정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발행일 2018년 12월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갈월동 101-5)
전 화 02-795-8000
팩 스 02-798-0014

본 자료는 GKL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비영리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